어린이 책꽂이

▲투덜투덜 뚱뚱씨=기분이 좋지 않은 뚱뚱씨가 주위의 모든 것에 화풀이를 하지만 똑똑한 강아지와 마음씨 착한 강아지 주인 아가씨로 인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그림동화. 악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패자를 응징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 〈세용출판·8천500원〉

▲우리는 한겨레, 북한문화재 외 (전 5권)=어린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뿌리있는 정서를 심어주는 '소중한 우리것 재미난 우리얘기' 시리즈. 고구려와 고려의 높은 기상과 용맹함, 영토확장을 한 왕들의 흔적, 고승과 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역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어린이 중앙·각 7천500원〉

▲고구려-찬란했던 700년의 역사='한국사 이야기' 22권을 집필한 재야 역사학자 이인화씨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집필한 책으로 균형있고 올곧은 역사관과 해박한 역사지식을 접할 수 있다. 중국에 대등하게 맞서 자주적인 면모를 보이며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언어세상·1만2천원〉

▲21세기 우리나라 좋은 나라-서울편=다양하고 흥미로운 5천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각 지역별로 나눠 학습만화로 엮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인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그렸다. 〈글수레·9천500원〉

▲궁금하거든 우리몸=숨쉬는 일,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 걷고 달리는 일 등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우리 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궁금하거든' 시리즈. 아이들이 일상속에서 갖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독특한 질문방식으로 구성했다. 〈고래실·9천500원〉

김화영의 알제리 여행기 김화영 지음
런던·비엔나·파리에서… 전원경 지음
두바퀴로 유럽 지도를… 김남용 지음

책속으로 떠나는 유럽·阿 여행

카뮈 고향·예술가 에피소드 담은 여행 길라잡이 잇따라 출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어딘가로 떠나는 꿈을 꾸는 이들이 많아지는 요즘, 다양한 여행서들이 출간됐다. 여행의 길라잡이로 삼아도 좋겠지만 혹여 지금 당장 떠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을 기약하고 책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김화영의 알제리 여행기=불문학자 김화영(고려대 교수) 교수가 알베르 카뮈의 고향인 알제리로 떠났다. 카뮈의 표현에 의하면 '오직 베푸는 것, 그것도 아낌없이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양의 고장 알제리. 그곳은 카뮈는 물론 앙드레 지드의 문학적 샘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방인'의 뫼르소와 마리가 수영을 하던 파도바니 해변, '티파사에서의 결혼'을 썼던 티파사 폐허, '제밀라의 바람'을 잉태한 고대 로마 유적 제밀라에서 카뮈를 추억한다. 또 앙드레 지드가 묵었던 사하라 호텔 등에서는 지드의 작품 '지상의 양식'을 기억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간되는 알제리 여행서인 이 책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는 '카뮈 전문가'인 저자의 안내로 카뮈 작품의 구절구절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래 전에 카뮈의 책을 접했거나, 아직 그의 작품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책을 들춰보고 싶게 만드는 유혹으로 다가온다. 〈마음산책·1만2천원〉

▲런던·비엔나·파리에서 만난 예술가의 거리=예술의 도시인 런던·비엔나·파리를 방문한 많은 이들이 루부르 박물관이나 대영박물관을 둘러 볼 때 저자 전원경은 예술가들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장소들로 발길을 옮겼다. 쇼팽의 죽음을 기억하는 프랑스의 몽소공원과 성 마들렌 성당,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저자인 루이스 캐럴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런던의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헤밍웨이와 랭보와 제임스 조이스의 단골집이었던 파리의 카페 '레 되 마고' 등 예술가들은 현재의 거리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듯하다. 예술가들을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와 풍성한 이야기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시공아트·1만5천원〉

▲두 바퀴로 유럽 지도를 그리다=웹 사이트 기획자로 일하던 김남용씨의 90일간 유럽 자전거 여행기다. 저자는 페달 하나에 몸을 싣고 묵묵히 두 바퀴를 굴리며 독일 로만틱 가도, 이탈리아 토스카나, 남불 해안, 영국, 오스트리아 티롤 등 유럽 8개국을 여행했다. 이 여행서의 매력은 80세의 생일을 맞아 한달 일정으로 캠핑카 여행중이던 80세의 두 할머니 등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함이 가득하다는 것. 저자가 직접 촬영한 생생한 사진들도 좋다. 〈이가서·1만8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엘 오라시 호텔에서 내려다보이는 알제리 수도 알제의 풍경.

세계 역사속 '암호'는 어떤 역할을 했나

암호 이야기 박영수 지음

'다빈치 코드'가 원작 소설은 물론 동명 영화로 개봉돼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비한 암호, 추리, 기호학을 바탕으로 한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가 한몫한다.

로마제국의 강력한 통치자 카이사르는 '암호'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인물이다. 카이사르는 가족과 비밀통신을 할 때 각 알파벳 순으로 세 자씩 뒤로 물려 읽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했다. D는 A로, F는 C로 바꿔 읽는 일종의 환자(換字)방식의 암호문이었다. 브루투스에게 암살되기 전 그가 받은 암호문은 'BE CAREFUL FOR ASSANSSINATOR(암살자를 조심하라)'였다. 이 경고를 무시한 그는 결국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졌다.

'암호 이야기'는 '역사 속에 숨겨진 코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역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암호'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역사의 나침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준다. 세계 2차대전의 승패는 암호에 의해 갈렸다.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주도권을 잡게된 이유는 전쟁 막바지에 독일의 암호가 대부분 해독된 때문이었다. 수준 높은 문명을 창출한 잉카족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에 전통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 그러나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통신문'이 필요했다. 〈북로드·1만1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김영남의 '푸른 밤의 여로'

마음에 단단히 맺혀 있는 고가 풀리지 않을 때 좋은 시를 골라 읽는다. 좋은 시들은 신통하게도 화두처럼 나의 그 고를 풀어준다. 좋은 시인의 마음은 자기의 눈을 통해 바깥 풍경들에게로 달려가 그것을 자기 꿈꾸고 싶은 대로 꿈꾸고 제 입맛대로 요리하여 먹고 입맛 다시고 그것을 독자에게도 권한다.

김영남의 시집 '푸른 밤의 여로'(문학과지성사 펴냄)를 읽으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진다. 그의 시각에서는 푸른 밤을 여행하는 나그네의 향기가 난다.

'저기 졸고 있는 개펄의 폐선 한 척이/앞에 서 있은 여자 한 명을, 아니/그 옆의 친구들까지를/그립게 했다가 외롭게 했다가 한다./ 그렇게 밀고 당기는 속성이/그 폐선 위에도 살고 있는 것인지/갈매기가 몇 마리 뜨니 더욱 그런다//…폐선이란/낡아 저무는 모습이 아니라/저물어선 안 될 걸/환기시키는 어떤 힘이라는 것을…/나도 언젠가는 저처럼/누굴 그립게 했다가 끌어당겼다 놓았다 하는/몽대항 폐선이 되리란 꿈을 꾼다.'

우주는 마음이 꾸민다

가령 김춘수의 시각은 꽃을 내가 꽃이라고 불러야 비로소 그의 가슴에 와서 꽃이 되는 정도일 뿐이지만, 김영남의 시각은 그보다 몇 걸음 나아간다. 김춘수의 마음에는 인식론적인 사유가 자리하고 있지만 김영남의 마음에는 유식학(唯識學)적인 사유 체계가 바다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가 출렁거린다.

김영남의 경우, 꽃은 그냥 꽃이 아니라 그의 눈빛이 꽃을 만드는 것이고, 하늘의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그의 눈빛이 하늘의 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헌 풍경을 새 풍경으로 만들어버리곤 하는 그의 눈 버릇은, 우주 전체를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고 장엄한다(莊嚴-꾸민다).

'느티나무 집/ 부엌 아궁이에서 불 지피던 아낙이/우는 아이 달래러 방에 들어갔군요.//느티나무 지붕 굴뚝에서/긴 손이 나오는 걸 보니//그 손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라 아이들/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있는 걸 보니//이윽고 하늘 메우는/저 향기로운 파우더, 파우더…/예쁜 개울 토닥이다가 아낙도/함께 잠들었군요.'

김영남의 시 속에는 슬프고 능청스러운, 고요와 시끄러움이 공존하는 향기로운 이야기가 들어 있다.

'벚꽃 소리 없이 피어/몸이 몹시 시끄러운 이런 봄날에는/문 닫아 걸고 아침도 안 먹고 누워 있겠네.//한 그리움이 더 큰 그리움을 낳게 되고…/그런 그리움을 누워서 낳아보고 앉아서 나아보다가 마침내는 울어버리겠네…/어제의 그리움을 땅이 일어나도록 꺼내겠네. 저 벚꽃처럼.//아름답게 꺼낼 수 없다면/머리 쥐어뜯어 꽃잎처럼 일어나도록 바람에 흩뿌리겠네.//꽃이 소리 없이 사라질까 봐/세상이 몹시 성가신 이런 봄날에는/냉장고라도 보듬고 난 그녀에게 편지를 쓰겠네. 저 벚꽃처럼.'

그의 시는 소설가들의 콩트보다 더 재미있다. 유도선수들이 상대를 업어치기로 한판승을 따 내듯이 끝에 가서 시원스럽게 반전을 시키곤 한다.

한 승 원
〈소설가〉